

2013년 5월 12일 (월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나의 하루

해가 갈수록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. 오늘은 워낙이 귀  
 대회가 있는 날이다. 아침으로 참치부엌을 먹고 학교 행  
 했다 준비체조를 하고 우리는 6반이랑 따구를 했다. 그런  
 데 6반 친구들이 질하는 친구들에게는 퍼스에서 우리 반  
 이졌다. 점심에 간식은 학교에서도 이제 우유를  
 가지게 되었다. 아쉬웠지만 아이스크림은 사주셔서  
 마음이 조금 풀렸다. 귀대회가 끝난 후 코카인  
 좋아서 이비인후과에 갔다. 거기서 약도 받아서  
 집으로 온 다음 집에서 영어 숙제를 했다.  
 그리고 점심은 식빵에 잼은 발라 먹고 피아노  
 도 쳤다. 그리고 좀 쉬다 친구들과 야구를 했  
 다.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잘한다. 4시 30분까  
 지 야구를 하고 집에 오자 아버지가 제즈도에  
 서 돌아오셨다. 너무 좋았다. 요즘 자전거에 바  
 람이 빠져 잘 안가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에  
 바람을 넣으러 갔다. 바람을 넣으니 자전거가  
 더 잘간다. 왠지 기분이 더 좋았다. 집에 온 다  
 음 가족들과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. 정말 맛  
 있었다.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알찬 날이었던  
 것 같다.

